

도내 동계 조사료 수급 비상

뽕짚 수거량 부족에 사료작물 생육마저 나빠... 수입조사료 쿼터량 조기배정해야

최근 자주 내린 비로 뽕짚 수거량이 부족해 동계사료작물 파종도 늦어지면서 조사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논벼 재배면적의 60~65%에서 뽕짚 수거가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 수거량의 35~40%에 불과하고 동계사료작물 파종도 계획면적 2만600ha의 80% 수준인 1만6480ha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국 뽕짚 생산량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전북전남 지역의 뽕짚 생산량은 지난해(87만톤)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낮은 것인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내 축협 조합장은 "올해는 곧포사 일리지(원형 뽕짚)를 지난해(2만개 내외)의 10%밖에 수확하지 못하는데다 품질도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원형 뽕짚 가격은 1개당 지난해보다 50~60% 오른 6만6천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여기에 조사료용 동계작물 파종 상황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잦은 비로 인해 파종시기를 놓친 곳이 많고 앞전데 덮진적으로 생육마저 좋지 않다.

남원에서 쫄소를 키우는 A씨는 "라이그라스 종자를 1만평에 파종했지만 잦은 비로 발아율이 10%도 안 된다"면서 "내년 봄에 싹이 나지 않은 포장에 다시 파종해도 예년의 30%도 수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내년도 국내 조사료가 전체 수요량의 50여만톤의 20%에 달하는 100여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상태로는 올 겨울철과 내년 상반기 중 조사료 수급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뽕짚을 대체할 국내 조사료 자원이 없어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수입조사료 쿼터량을 올해의 80만톤에 55만톤을 추가한 140만 내외로 운영하고 내년 초에 조기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는 2017년 봄 동계사료작물 춘파재배를 올가을 미파종 면적뿐 아니라 다른 유휴 농경지까지로 확대하고, 하계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료작물 종자공급 예산을 전년 대비 150% 이상 늘려 2억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뽕짚의 다른 시도 반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입조사료 쿼터 증량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대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경우 뽕짚수거 및 사료작물 파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파종이 늦어지면 겨울철 언파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는 파종을 마치고 내년 초에 조기 배정해야 한다고



전북은행,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1위 지방은행 부문 2년 연속

전북은행은 지난 17일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2016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평가에서 지방은행 부문 1위에 2년 연속 선정됐다.

39개 업종 141개 기업 및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평가 조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12주간 대고객 설문조사와 전화모니터링을 병행해 실시했다.

전북은행 콜센터는 고객의 다양한 요청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 전자금융, 대출상담, 수신 등의 업무는 물론 어르신전용, 영업점전화 집중, 영어전담 상담, 원격지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뉴스마트뱅킹에 '스마트페

스크' 업무를 신설해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사교신 고철회, 비밀번호변경, 수신 전자금융 업무 등 본인확인을 스마트폰으로 진행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업무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해 콜센터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 모니터링과 피드백, 콜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님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들여 더욱 사랑 받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세무조사 제외되는 '일자리 창출 중기' 감소

매출 1000억원으로 축소

내년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지원대상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내년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내달 9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제출기업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 내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매출 500억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등 조특법상 업종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법인도 매출 1000억원 미만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3월 접수 받을 당시 지원대상을 매출 2000억원

미만으로 했던 것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특법 개정에 따라 변호법리,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인적용역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불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다면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요건은 내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최소 1명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매출 300억원 미만 기업은 올해 상시근로자의 2% 이상, 300억원 이상 1000억 미만 기업은 4% 이상 내년에 고용을 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연도 매월 말 근무 중인 직원 수의 월 평균으로 구하며, 만 15~29세 미만 청년근로자의 경우 1명을 고용할 때마다 1.5명으로 가중치가 부여된다.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

하며, 자동으로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등의 계산을 해주기에 오차 없이 정확·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세무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도 가능하지만, 우편·팩스의 경우엔 반드시 관련 세무사에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6년 대비 2017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하며, 월 말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며, 분할법인의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제연도 및 당해과제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인재용 기자

호남선 노후교량 개량 공사로 교통제한

한국도로공사 전북분부는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호남고속도로 전주삼례구간 170.5km 지점 화전2교 개량공사를 위해 지난주 순천방향 제한에

이어 21일 천안방향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노후로 인한 내하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화

전2교를 전면 개량해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시간대는 당일 12시에서 익일 12시까지 총 24시간이며 1차로와 2차로를 교대로 제한하게 된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나들가게 육성 본격 추진

전주시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전주시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란 모델숍, 건강관리 및 점주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노후화된 점포를 현대화하고 체계화된 점주교육, 마케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향후 3년간 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주시와 경진원은 18일까지 나들가게 점주와 나들가게로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 슈퍼 점주들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 시설현대화 14개 점포, 건강관리 44개 점포 등 총 58개 점포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특화사업 개발 점주역량강화교육, 공동세일전, 나들가게 조직화 지원, 홍보 및 부가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전주지역 나들가게는 212개 점포로 전북 전체 나들가게 631개(2015년 8월 기준) 점포 중 33%를 차지하고 있다.

경진원 관계자는 "매년 10% 매출증가를 목표로 정하고, 대형 유통기업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들가게를 도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총 140건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분부는 21일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84억원 규모 총 140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주 주요 공매 물건으로는 군산시 산북동 소재 아파트와 전주 덕진구 우아동 소재 아파트, 김제시 순동 소재 공장 등이 있다.

공매 참여 시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24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